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종석, 소리에 반응하는 폭탄 테러 영화 '데시벨' 16일 개봉


배우 이종석 뉴시스

이종석은 2005년 서울 컬렉션 최연소 남자 모델로 데뷔해 5년간 인기를 끌며 활약했다. 그해 SBS '진실게임'에 출연해 브레이크 댄스 등 장기를 선보이며 방송에 처음 얼굴을 드러냈다.

모델 활동 도중 방송국 PD 눈에 띄어 2010년 3월 SBS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에서 윤세준(한정수 분) 검사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수사관 이우현 역을 맡아 조연으로 출연했다.

같은 해 하지원, 현빈 주연의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썬 역할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까칠한 천재 작곡가 썬을 통해 묘한 동성애 기류를 만들며 중성적이고 쿨한 매력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MBC, KBS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

2011년 MBC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서 배우 안내상의 장남 안종석 역으로 출연했다. 여동생 크리스탈과 '톰과 제리'같은 찰떡 연기 호흡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극중 보여준 '뿌잉뿌잉'이라는 애교는 현재까지 회자되는 이종석의 트레이드 마크다.



라테라스한남 서울 용산구 한남동 773-1

영화에서도 맹활약했다. 2012년 영화 '코리아'에서 북한선수, '알투비:리턴 투 베이스'에서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 역을 맡는 등 다양한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 좋은 연기를 펼쳤다.

이듬해 이종석을 스타 반열에 올린 KBS 드라마 '학교 2013'에 출연했다. 극중 무심한 듯, 속 마음은 따뜻한 고남순 역을 맡아 동갑내기 모델 출신 배우 김우빈과 인상적인 연기호흡을 펼쳐 KBS 연기대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닥터 이방인' '피노키오' 'W(더블유)' '당신이 잠든 사이에' '사의찬미' '로맨스는 별책부록' '빅 마우스' 등과 영화 '관상' '노브레싱' '피끓는 청춘' '브이아이피' 등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며 활약했다. 특히 2016년 방영한 드라마 'W(더블유)'에서 주인공 강철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 첫 연기대상을 받았다.

2017년에는 영화 '브이아이피'에서 희대의 사이코패스 살인마 북에서 넘어온 김광일을 맡아 모든 사람을 비웃는 듯한 오만한 태도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시청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데뷔 이래 가장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변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같은 해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로 수지와 각각 SBS 연기대상 수목드라마부문 남자 최우수연기상을 받아 수상 경력을 추가했다.

시상식에서 "제가 상복이 유난히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상을 받을 때마다 무겁고 무서울 때가 많았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한 계단씩 조금 빨리 상을 받는 거 같아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적이 많았다"라며 "나의 20대를 지켜봐 준 팬들에게 고맙고 이제 서른이 되는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에는 3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작 tvN 드라마 '빅마우스'에 출연했다. 승률 10%의 생계형 변호사 박창호(이종석 분)가 우연히 맡게 된 살인 사건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희대의 천재 사기꾼 '빅마우스'가 돼 특권층의 민낯을 파헤쳐 가는 이야기다. 아내 고미호(윤아 분)와 굳건한 권력에 맞서 사투를 벌이며 흥미로운 연기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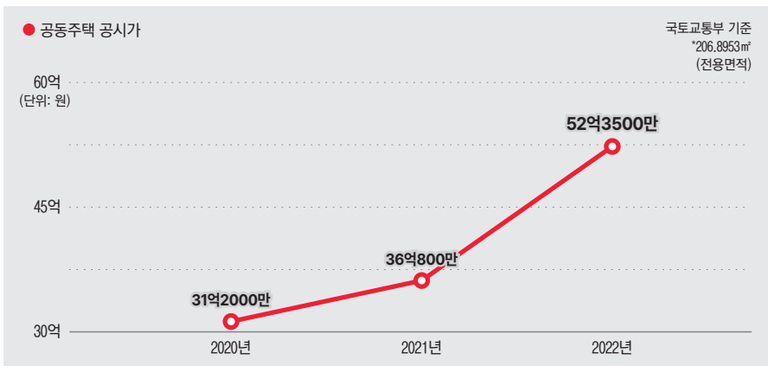
다양한 캐릭터를 오갔던 이종석이 16일 영화 '데시벨'로 돌아온다. 소리에 반응하는 특수폭탄으로 도심을 점거하려는 테러범과 타깃이 된 해군 부함장 출신의 남자가 반나절 동안 벌이는 도심 테러 액션 영화다.

폭탄 설계자이자 멘사 출신 해군 대위 역을 맡는다. 뛰어난 두뇌로 '소음 반응 폭탄'을 설계해 도심 한복판을 테러 무대로 삼아 숨 막히는 긴장감을 선보인다.

또한 테러의 타깃이 된 전직 해군 부함장(김래원 분)과 쫓고 쫓기는 구도로 팽팽한 대립으로 관객들의 몰입감을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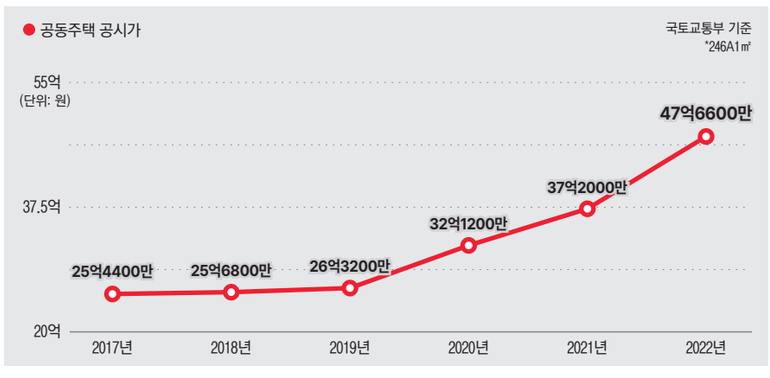
나인원한남

서울 용산구 한남동 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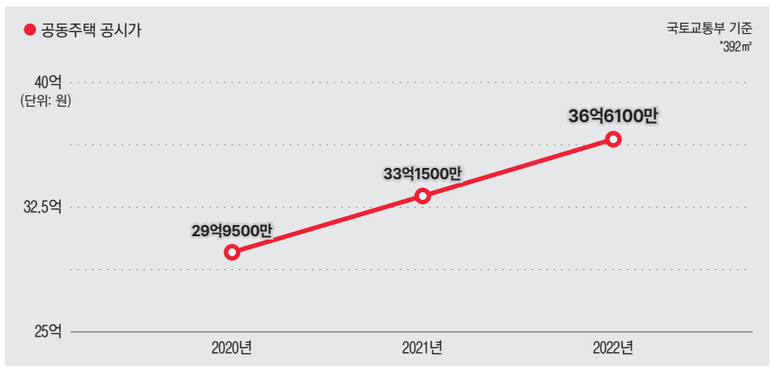
한남더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810



르가든더메인한남

서울 용산구 한남동 386



허승범

현)삼일제약 회장



허승범 삼일제약 회장은 삼일제약 허용창업주의 맏손자이자 허강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미국 트리니티대를 졸업하고 2005년 삼일제약 마케팅부에 입사해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거쳐 2013년 대표이사 부사장에 올랐다. 이듬해 사장, 2018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창업 3세 경영시대를 열었다. 2018년 7월에 최대주주가 돼 실질적 경영권까지 거머쥐었다. 올해 1월 회장 자리에 올라 실적 부진의 돌파구로 위장관치료제 등 주력 제품 매출성장과 베트남 진출 등 수익성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글로벌 안과 시장 공략을 위해 베트남 호치민시에 안과질환 치료제 위탁생산(CMO) 공장을 짓고 있으며 올해 4분기 완공 후 2023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삼일제약은 어린이 해열제 브랜드 '부루펜', 매출 1위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스타시스' 국내 독점 유통판매하는 중견 제약사다.



박제준

현)바이킹그룹 대표이사



박제준 바이킹그룹 대표이사는 단국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00년대 동남아로 여행을 떠난 것이 바이킹그룹 탄생의 계기가 됐다. 당시 식사로 부채 새우와 슬리퍼 랍스타가 나왔는데 '고급 해산물인데 값이 많이 비싸지 않다'는 것을 알고 직접 수입해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무역을 독학으로 배운 뒤 수산물 유통 회사인 '바이킹 수산'을 설립해 2003년 경북 포항에 씨푸드 전문 패밀리 레스토랑 '바이킹스'를 오픈했다. 반응이 좋아 2005년까지 4호점까지 열었다. 그 시기 미국 씨푸드 뷔페인 '토다이'가 한국 진출을 원해 브랜드를 들여와 토다이코리아를 설립, 대표를 맡았다. 토다이는 국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씨푸드뷔페 성공신화를 썼다. 바이킹그룹이 운영하는 외식 브랜드는 '바이킹스 워프' '어촌계' '빅가이스 랍스타' '빅가이스 뎃판' 등이 있으며 파인 다이닝 콘셉트의 레스토랑 '크랩52'를 3월 신규오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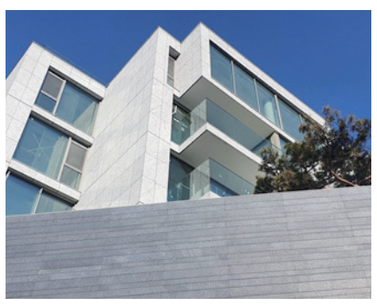


김명민

현)탤런트



1996년 SBS 공채 6기 탤런트로 데뷔한 김명민은 신인 시절 별로 두각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2000년 MBC 드라마 '뜨거운 것이 좋아'에 최진상 역으로 출연해 MBC 남자신인상을 받으면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한때 무명생활로 배우 활동을 그만두려고도 했지만 이후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주인공 충무공 이순신 장군 역으로 출연하면서 배우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었고 KBS 연기대상을 차지하며 믿고 보는 연기파 배우로 등극했다. 이후 '연가시' '간첩' '브이아이피' '물괴' 등의 영화와 '하얀거탑' '베토벤 바이러스' '로스쿨' 등의 드라마를 종횡무진 활약하며 인기를 높였다. 2006년에는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의 SBS 드라마 '불량가족', 영화 '조선명탐정' 시리즈에 출연해 코믹한 모습으로 연기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라는 평을 받았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김포 등 수도권 서부지역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 추진

서울시·서울 강서구·김포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도시철도 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하여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김포골드라인이 개통돼 서울로의 접근성이 다소 용이해졌으나 경전철(2량) 수송력의 한계로 여전히 출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선다.

먼저 서울시·김포시·서울시 강서구는 도시철도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지 이전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 간 5호선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선 인근 지역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대상지. 국토교통부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를 대폭 확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을 일부 분담해 5호선 연장사업이 실행되는 데에 핵심적인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5호선 연장 세부노선안은 인천시·인천시 서구·경기도·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후 정부의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이번 협약과 함께 노선 등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통해 김포한강2 개발과 연계한 5호선 연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하고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압축해 개발한다. 주변 부지에서도 역 접근이 쉽도록 교통 네트워크를 연계해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김포·인천)·GTX-D 노선·5호선·고속도로 IC·한강변 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교통체계를 접목시켜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특화도시로 조성한다.

대중교통 및 도로를 통한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도48호선 버스전용차로를 지구 내까지 연장하고 기존 한강신도시와 연계한 BRT 도입과 지구 중심부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도심 내 교통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변 수도권제2순환, 계양강화고속도로 확장 및 IC 신설을 추진하고 주변 정체지점은 입체화한다. 검단 신도시와 연결 도로도 신설해 인천 방면으로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철도역 인근 지구 중심부에는 고밀개발을 통해 대형오피스, 복합쇼핑몰 등을 배치해 도시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복합적 토지이용으로 주거·일터·서비스 집적과 함께 스마트시티 요소도 대폭 도입한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용인,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150% 상향

용인특례시

용인시는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최대 150%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11일 공포해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조례에는 단지별 보조금이 △1000가구 이상 단지는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단지는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단지는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단지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올라간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공용 시설 보수에 부담을 갖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150% 상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아파트 주차장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으로 새단장 한 후 모습(오른쪽).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준공 후 7년이 지난 관내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으로 단지 내 도로나 범죄 예방시설,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고 노후 승강기 교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